

중국에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과제 - 산동성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안미선 (Meishan An)
(ams5512234@126.com)
Weihai Vocational College, China

김철 (Zhe Jin)
(jz0306@hanmail.net)
Shandong University, China

초록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조선어)교육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비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민간 설립의 외국어학원, 외국어연수학원, 한국어 자습대학, 직업기술학교, 각 대학의 국제교류학원과 독립학원, 외국어학습반(한국의 학원과 비슷함), 야간대학 등을 가리킨다. 중국에서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1992년 8월 중·한 수교를 계기로 나타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17여 년의 발전 노정을 걸어왔다.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이 급성장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한 수교 이후,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양국 간의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가 활발해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4년제 정규대학교에서 한국어전공 또는 학부를 설립하고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바, 전국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3년제 대학만 해도 120 여 개에 달한다. 이는 비정규한국어교육도 그 나름의 발전이유와 전망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규모가 있으면서도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그리고 정규교육기관보다 신축성이 있는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된 한국어교육은 점차 그 우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졸업생의 취업도 순조로운 편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학과설립과 커리큘럼, 교수진 수준향상, 교재개발 등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그리고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도 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지나친 팽창, 또는 위축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나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균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이에 대비하여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한 발전모식을 탐색, 제시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상기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그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머리말

본 논문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조선어교육)을 가리키며 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중국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에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1992년 8월 중·한 수교를 계기로 나타났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17여 년의 노정을 걸어왔는 바, 비록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3년제 대학만 해도 120여 개를 웃도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2년제 대학과 3년제 중전(中專: 한국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비슷함)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유의 여건상 일일이 다 집계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도 중·한 경제, 문화교류와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나름의 기여를 했고 현재도 그 역할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규모가 있으면서도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그리고 정규교육기관보다 신축성이 있는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한국어교육실리 등 나름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과 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면들이 있는 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그 나름의 생존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기업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실용적인 기능을 겸비한 일반 한국어인재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비정규교육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그 교육자원이나 기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학과설립과 커리큘럼, 교수진 수준, 교재개발, 관리수준 등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산동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서 공동으로 나타난 문제로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전반 비정규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온당한 발전은 물론 전반 사회경제발전에도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산동성(山東省) 내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현황에 대해 면밀한 고찰 및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산동성, 나아가서는 중국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발전 및 그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보고 상응한 대비책 및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문제점

2.1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개황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과 비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본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을 가리키며 비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본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전문대학이나 중등전문대학, 자습대학, 야간대학, 독립학원, 그리고 각종 어학원을 아울러 지칭한다 (Lee, 2006).

위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중국에서의 비정규기관 한국어 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대는 대체 1992년 8월 24일 중한수교가 이루어진 후부터이다. 사실 특정 지역인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위헤시에는 1992년 수교 전부터 이미 일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 일부 소위 한국어(실체는 조선어였음)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수요에 부응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위헤시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과 개항(1991년부터 실험 운행 시작, 1992년부터는 정식 운행)한 연해도시로서 경제무역 관계 때문에 사설 한국어학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 후부터 사설학원이나 단기학습반, 전문대학반(2년제 대학) 등과 같은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점차 일정한 규모를 이루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2-3년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비정규교육기관들은 90% 이상이 2000년 후에 생긴 것들이다. 정규교육기관인 본과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를 대량 개설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산동성(山東省)을 제외한 기타 전국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산동보다는 좀 늦게 발전되었지만 그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산동성 외에도 강소성, 길림성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역시 예기치 못할 정도의 규모로 발전하였다.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급성장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중·한 수교 이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급증, 이에 따른 양국 간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의 증가에 있다.

우선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중·한수교이다. 장장 40여년을 반목해왔던 중국과 한국은 끈질긴 노력 끝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중한관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선린관계와 공동문화를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시 야심찬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가장 흡인력이 컸던 것은 저렴한 인건비와 자재비용,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세한 지리적 위치와 유사한 문화를 기반으로 중국의 산동성 연해도시(청도, 위해, 연대 등 지역), 연변을 중심으로 한 동북 3성, 그리고 기타 중국의 친진, 북경, 광주, 상해, 강소 등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엔 이전이 편리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대기업들도 따라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3만 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그 투자규모도 상당히 큰 바, 한국의 대 중국 총 투자액의 약 50%가 산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산동에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급한국어인재보다는 대량의 일반 한국어인재 또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부응해서 산동성에서는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문화의 인기 급부상 등도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양한 문화 및 인적 교류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했고 우의와 신뢰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한류”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는 대중문화뿐만이 아닌 기타 문화들, 이를테면 날로 늘어가는 장기거주 한국인(산동성은 15 여만 명으로 추정, 전국적으로는 30-40 만 정도로 추정함)들과 이들이 갖고 들어온 거주문화나 음식문화, 소비문화 등 다양한 생활 문화들도 점차 중국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과 교류하거나 거래하고 한국회사에 취직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큰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한국정부지원 프로젝트)운영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산동반도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청도, 위해의 세종학당은 더욱 인기가 있다.

상기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에서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대학의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인재양성에서는 정규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자체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일반 한국어인재양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상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비정규교육기관이다. 비정규교육기관은 신축성이 있는 학생모집시스템과 교육시스템 등으로 일반인재 양성에서 정규대학교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점차 활발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보통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규모는 큰 편인데 많으면 몇 천 명, 작아도 수백 명에 달한다. 그리고 배출되는 졸업생들도 수적으로 매우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대부분 졸업하는 대로 다 취직된다는 점이다. 이런 졸업생들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취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능면에서도 보편적으로 본과대학을 나온 학생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서 선호한다. 이런 원인으로 전문대학 또는 중등전문대학(中專) 졸업생들은 취직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반 한국어인재 수요량의 급증과 졸업생들의 취직 호황 등은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최근 중국정부에서 직업대학이나 직업기능학교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비정규교육기관의 발전이 전례 없이 뚜렷해진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산동성 위해시를 예로 들면 현재까지만 해도 약 20-30 개 남짓한 전문대, 중등전문학교, 민영학교 또는 사설학원이 있는데 배출되는 졸업생은 3 천여 명에 가깝다. 연대도 적어도 위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도는 이 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산동성 연해(청도, 위해, 연대, 일조 등)를 중심으로 전성에 포진해 있는 2-3 년제 전문대학이나 중전(中專:고등직업기능학교와 전문직업기능학교에 해당함) 및 사설 한국어학원들은 어림 잡아 80 여 개는 쉽게 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아래에 산동성 내의 청도(靑島), 제남(濟南), 위해(威海), 연대(煙臺), 일조(日照), 유방(濰坊), 치박(淄博) 등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들(대부분)과 위해시(威海市)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전체 37 개) 전문대학과 중전(中專)(고등직업기능학교)들의 대체적인 분포와 교사, 학생수, 학제 등 상황을 도표로 제시했다.

번호	학교명	성/시	학생수	중국인 교사	임시채용 교사	한국인 교사	학제
1	青島濱海職業技術學院 청도해빈직업기술대학	青島市 (청도시)	2000	18		무	3年制專門 (전문대학)
2	私立青島東方外國語專修學院 사립청도동방외국어연수대학	青島市 (청도시)	900	16		3	3年制專門 (이하 동상)
3	青島港灣職業學院 청도항만직업대학	青島市 (청도시)	343	5		1	3年制專門
4	青島酒店管理學院 청도주점관리대학	青島市 (청도시)	180	3		무	3年制專門
5	山東外貿職業學院 산둥대외무역직업대학	青島市 (청도시)	150	2		3	3年制專門
6	青島職業技術學院 청도직업기술대학	青島市 (청도시)	95	4		4	3年制專門
7	山東商務職業學院 산둥비즈니스직업대학	煙臺市 (연대시)	420	7		1	3年制專門
8	煙臺職業技術學院 연대직업기술대학	煙臺市 (연대시)	330	5		3	3年制專門
9	煙臺職業學院 연대직업대학	煙臺市 (연대시)	270	5	2	3	3年制專門
10	山東青年管理幹部學院 산둥청년관리간부대학	濟南市 (제남시)	500	5	10	5	3年制專門
11	山東旅遊職業學院 산둥관광직업대학	濟南市 (제남시)	320	6			2年制專門
12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 산둥성농업관리간부대학	濟南市 (제남시)	300	2		무	3年制專門
13	中華女子學院山東分院 중화여자대학산둥분교	濟南市 (제남시)	270	4		4	3年制專門
14	山東商業職業技術學院 산둥비즈니스직업기술대학	濟南市 (제남시)	200	4		2	3年制專門
15	山東凱文科技職業學院 산둥카이윈과학기술직업대학	濟南市 (제남시)	120	1	3	무	3年制專門
16	山東電子職業技術學院 산둥전자직업기술대학	濟南市 (제남시)	101	4		무	3年制專門
17	山東外事翻譯學院 산둥외사번역대학	濟南校區	274	6		1	3年制專門
18	山東電子職業技術學院 산둥전자직업기술대학	濟南市 (제남시)	100	3		2	3年制專門
19	山東科技職業學院 산둥과학기술직업대학	濰坊市 (유방시)	1300	13		10	3年制專門
20	濰坊職業學院 유방직업대학	濰坊市 (유방시)	420	4		2	3年制專門
21	山東經貿職業學院 산둥경제무역직업대학	濰坊市 (유방시)	200	3		1	3年制專門
22	山東信息職業技術學院 산둥정보직업기술학원	濰坊市 (유방시)	136	3		1	3年制專門
23	濰博職業學院 치박직업대학	濰博市 (치박시)	500	4	4	4	3年制專門

번호	학교명	성/시	학생수	중국인 교사	임시채용 교사	한국인 교사	학제
24	淄博師範高等專科學校 치박사범전문대학	淄博市 (치박시)	170	5		무	3年制專門
25	日照業技術學院 일조직업기술대학	日照市 (일조시)	520	6	6	4	3年制專門
26	威海職業學院 위해직업대학	威海市 (위해시)	884	16		11	3年制專門
27	威海翻譯學校 위해번역대학	威海市(經區) (위해시)	600	20		3	中專
28	山東外事翻譯學院 산둥외사번역대학	乳山市(유산시) (威海校區)	1263	14		4	3年制專門
29	威海文登師範 위해문등사범	文登市(문등시) (威海地區)	500	14		5	3年制專門
30	威海外國語進修學院 위해외국어연수대학	文登市(문등시) (威海地區)	450	24		3	3年制專門
	中專部 증전부		200	12		1	中專
31	威海信息工程學校 위해정보공학학교	乳山市(유산시) (威海地區)	350	12		3	中專
32	威海外國語進修學院 위해시외국어연수대학	威海市(高區)(위 해시)	350	13		3	中專 (3-4년제)
33	文登高級職業技術學院 문등고급직업기술대학	文登市(문등시) (威海地區)	350	11		3	
34	威海英才職業技術學校 위해영재직업기술대학	威海市(위해시)	300	5		5	3年制專門
35	威海市外國語言學校 위해시외국어학교	威海市(위해시)	200	8		무	中專
36	威海外國語學院大專部 위해외국어대학	文登市(문등시) (威海地區)	200	10		2	3年制專門 (전문대학)
37	威海藝術學校 위해예술대학	乳山市(유산시) (威海地區)	170	8		무	3年制專門
	합계		16136	299	25	97	

표1: 산둥성 부분적 비정규교육기관의 상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바, 산둥성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36개(일부분 학교)의 3년제 전문대학 및 중전(中專)에서 공부하는 학생만 해도 무려 1,6136여명에 달하며 교사는 421여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교육기관들의 한국어교육은 다 취직을 위한 한국어학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취직을 목적으로 한 간단한 한국어구사능력습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문화에 대한 약간의 지식습득 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본과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과는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목표	주요 기능	수업과목	평가기준
1. 중급 이상의 한국어듣기와 말하기 2. 중급 이상의 번역수준 3. 중급 이상의 읽기, 쓰기 능력	한국어활용능력	종합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중급 이상 세계한국어인증시험 (KLPT) 중급 이상
		한국어 시청 및 말하기(초급)	
		한국어 구어	
		한국어 독해	
		한국어 시청 및 말하기(중급)	
		한국어 시청 및 말하기(고급)	
		한국어 번역실무	
TOPIK 시험 전문훈련			
1. 기본적인 경제무역이론 이해 2. 국제무역사무에 능숙 3. 국제무역절차에 익숙	경제무역실천능력	국제무역실무	전국대외무역업무원, 고급국제무역업무원, 세관업무처리원 등 경제무역 관련 증서
		국제상법	
		국제무역절차 및 진행	
		비즈니스한국어	
		비즈니스영어	
1. 한국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민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2. 기본적인 외교상식과 한국기업문화 이해. 3. 한국문화의 깊이 있는 이해 및 문화 교제 지식 구비.	문화교제능력	한국개황	
		교제와 예의	
		한국문화체험	
		외교 및 직장 예의	
		중국 문화사	

표2: 위해직업대학 직업요구에 따른 핵심능력 과정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한국어인재들은 앞으로 중국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인력재원이 될 것인 바,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만족하지 않고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꾸준히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및 규제로써 맹목적인 확장을 막고 비정규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건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2.2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한 교류와 협력이 날로 밀접해지고 한국어인재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역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필자가 보건대 반드시 비정규교육기관의 교육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속이 있게 해결해야 만이 참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먼저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2.2.1 교사진 문제

비정규교육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비정규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어교사를 원하는 한국어과 졸업생들이나 석, 박사졸업생들은 그래도 정규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선호하지 열악한 여건과, 과중한 수업 부담과 낮은 임금을 주는 비정규교육기관은 원하지 않는다. 자주 젊은 교사들은 근무여건이나 처우 때문에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해서 교사의 유실과 유동성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비정규 교육기관은 늘 교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다보니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교사 확보나 일정한 규모의 수준이 있는 교수진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심각할 경우엔 갓 졸업한 본과생들을 적은 노임에 임시로 한 학기씩 강의를 시키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비정규 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과의 인재 경쟁에서 많이 밀리면서 심각한 교사결핍 난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한 명의 정식 교사도 없이 거의 전부 다 임시 채용으로 교사를 확보하여 한국어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들도 있다. 물론 현재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교사진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렇지만 3년제를 제외한 2년제 대학이나 학교들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정규교육기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어떤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음 한국어교사들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낮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어교사들은 대부분이 조선어(한국어)전공이 아닌 본과를 나온 퇴직 조선족 교사들이거나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한족 교사들로서 자격 미달의 교사들이 적지 않다. 현재 산동성을 중심으로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 교수진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교사들이다. 조사에 따르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교수의 15% 정도(청도 및 위해서 상황임, 일반적으로 한족 교사들은 56%정도, 기타 29%는 한국인 교사들임)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지만 모어가 한국어라는 이유로 한국어교사로 되었다. 또한 이들은 대개 한국어교육을 제2직업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민간설립의 외국인 학원들에서 한국어 교사를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선족 교사들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높지 않다.

둘째, 학부졸업생들이나 전문대 졸업생들이다. 연변대학 조문학부 학부 졸업생들이나 혹은 중국의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 3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다. 이중에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사가 64%, 학사이하 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이 무려 25%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 이들은 주로 민간설립의 외국인 학원들에서 임시로 한국어 교사를 맡고 있다.

셋째,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 대학원생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원 학습과정에 수업 외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주로 외국인 학습반이나 혹은 독립학원, 국제교류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산동대학교(제남), 청도중국어해양대학교, 청도대학교 등 도시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들의 대학원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외에 비정규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넷째, 현지 거주 한국인들이나 현지 거주 한국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外教(외국인 교사)로 통하며 주로 민간 설립의 외국인학원이나 외국인학습반 등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 중에는 일부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있다. 한국인 교수는 전체 교사의 29%에 달한다.

다섯째, 일부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들이다. 이들은 주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외국인학습반, 자습대학, 야간대학 등 대학교가 개설한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Lee, 2006).

위의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교사 집단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집단인 다섯째 집단이다. 만약 다섯째 집단에 속하는 검칙으로 가르치는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 교사들 중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교사는 매우 적다. 비전공자는 물론 일부 전공자들도 자격이 미달인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경험 부족과 전공지식결핍 및 교육이론수준의 미달 등 문제점들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기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이상의 학생들이 그 원인을 교사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다 (Lee, 2006). 이런 결과는 비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사들의 자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산동반도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들의 수준향상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교육수준임을 염두에 둘 때,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은 산동반도 및 산동성

전체 비정규교육기관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마 전국의 비정규교육기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2.2.2 교육과정 문제

교과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교육기관에 의하여 의도된 전반 교과활동 또는 그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로 학습자의 요구분석,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교수요목, 교재, 교수 학습법, 시험과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Min, 2003).

일반적으로 정규교육기관인 대학교들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어 있으나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일부 대학들의 한국어교육은 필요한 교과과정들이 문자상으로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과정이 이상적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대학들은 상응한 교과과정들이 표준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대체적으로 매 학기 개설과목들만이 제시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아래에 산둥성 청도와 연대, 위방, 제남, 위헤시에 있는 몇 개 전문대학들의 개설과목들을 조사한 결과를 도표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간은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했다.

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제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威海職業技術學院 (위해직업기술학원)	종합한국어 (초 1) 한국어듣기	종합한국어(초 2) 한국어듣기 한국어회화 한글타자 한국개황	종합한국어(중 1) 한국어시청 한국어회화 한국어강독 한글소프트웨어 및 응용	종합한국어(중 2) 한국어시청 한국어회화 한국어강독 한중번역실무	종합한국어(고 급) 한국어시청 한국어회화 한국어강독 무역한국어	실습	3년제전문
青島港灣職業學院 (청도항만직업학원)	종합한국어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종합한국어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종합한국어 한국어강독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종합한국어 한국어강독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한국어회화 실습 비즈니스번역 한국개황 한국어구두번 역 한국어작문		3년제 전문
山東電子職業技術 學院 (산둥전자직업기술 학원)	기초한국어(1) 한국어회화(1)	기초한국어(2) 한국어회화(2) 한국어시청(1) 한국어강독(1)	기초한국어(3) 한국어회화(3) 한국어시청(2) 한국어강독(2) 한국어작문	기초한국어(4) 한국어회화(4) 한국어시청(3) 한국어강독(3) 비즈니스한국어 회화 한국어번역 한국개황			2년제 전문

표 3: 부분적 2·3년제 전문대학 전공과목 개설현황 비교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각 학교들에서는 개설한 한국어전공학과목들은 대동소이하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거의 같은 상황이나 2년제 대학과 중진(직업기능대학)들은 학교의 양성목표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상), 회화, 듣기 같은 과목들을 개설했고 거의 다 3학년 첫 학기까지 가르치고 나머지 학기는 다 실습으로 되어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보다 상세하고 체계화된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 교수요목(요강) 등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교육기관 한국어교육은 상대적으로 무질서하고 산만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3학년

가서는 취직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은 아주 적기 때문에 전공과목교육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우선 교과과목 명칭부터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어떤 정독(문법)과목의 명칭은 초, 중이나 또는 고급단계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한어정독(韓語精讀)”와 “한어어법(韓語語法)”, “종합한국어(綜合韓國語)”, 또는 “한어판독(韓語泛讀)”와 “한어강독(韓語闕讀)” 등과 같이 같은 내용이면서도 명칭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한국어 번역(韓國語翻譯)”과 같이 오리무중의 과목명칭도 있다.

3년제 대학들의 한국어교육교과과정은 그런대로 형식상, 내용상에서 일정한 명목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타 중전(中專)이나 자습대학, 그리고 이외의 한국어교육은 교과과정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실제 수업을 뚜렷한 목표와 계획에 맞춰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학과목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단계 및 교육목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들의 의지에 의해 나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들은 구체적인 진도 계획이 없이 한 학기 기간 되는 대로 가르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 어떤 학교에서는 회화 교사가 부족하여 자주 원래 개설된 회화과목을 취소하고 정독이나 듣기과목으로 대체해 버린다고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으로 강독, 쓰기, 한국개황 등 과목의 수업을 아예 다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수업과 관련한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수업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학기에 따른 학과목배정도 주요과목은 그런대로 일치성을 보이는 반면 일부과목 이를테면 “한국개황”나 “한국어작문” 같은 과목은 그 배정학기가 일정하지 않다.. 하여튼 전공과목설치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2.2.3 교재 사용 및 편찬 문제

교재사용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현재까지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 알맞은 교재들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확실하게 고정된 교과서가 없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도표[3]을 통해 먼저 그 교재 사용실태를 대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과목	교재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편집
語法/ 精讀 어법/정독	《標準韓國語》(初、中級) 표준한국어(초, 중급)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1994年初版 1994년 초판	25個大學共同編纂 25개 대학 공동편집
	《初級韓國語》(上、下冊) 초급한국어(상, 하편)	延邊大學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2002年初版 2002년 초판	崔義秀等 최희수 등
	《中級韓國語》(上、下冊) 중급한국어(상, 하편)	遼寧民族出版社 요녕민족출판사	2001年 2001년	崔義秀主編 최희수 책임편집
	《大學韓國語》(1、2) 대학한국어(1、2)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5年初版 2005년 초판	牛林傑等 우림걸 등
	《韓國語》(1—4) 한국어(1-4)	民族出版社 민족출판사	2003年 2003년	李先漢等 이선한 등
	《韓國語教程》 한국어교정	世界圖書出版社 세계도서출판사	2007年 2007년	延世大學韓國語學堂編 연세대학한국어학당 편
會話/口語/經濟 貿易會話 회화/구어/경 제무역회화	《初級韓國語會話》 초급한국어회화	延邊大學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2007年 再版 2007년 재판	俞春喜等 유춘희 등
	《中級韓國語會話》 중급한국어회화	延邊大學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2002年 初版 2002년 초판	俞春喜等 유춘희 등
	《輕松學韓語》 쉽게 배우는 한국어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6年 2006년	韓國語補習班編著 한국어보습반 편저
	《大學韓國語會話教程》 대학한국어회화교정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3年 2003년	張敏等 장민 등
	<가나다 韓國語> 가나다 한국어	SISA EDUCATION	2003年 2003년	
	《經貿韓國語》 경제무역한국어	上海交通大學出版社 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02年 2002년	李浩 이호
	<가나다 韓國語> 가나다한국어	SISA EDUCATION	2003年 2003년	

과목	교재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편집
	《韓國語聽力教程》 한국어듣기교정	大連理工大學出版社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년 2005년	尹敬愛, 權赫哲編著 윤경애, 권혁철 편저
	《新標準韓國語》 신표준한국어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외국어교육 및 연구출판사 (한국慶熙大學國際教育院)	2006年 第二版 2006년 제2판	金重燮等 김중섭 등
	《韓國語聽力教程》 한국어듣기교정	大連理工大學出版社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2006年 2005-2006년	尹敬愛, 權赫哲編著 윤경애, 권혁철 편저
	《韓國語聽力教程》 한국어듣기교정	外國語教育與研究出版社 외국어교육 및 연구출판사	2006年 2006년	朴銀淑等 박은숙 등
	《韓語聽力教程》 한국어듣기교정	上海外國語教育出版社 상해외국어교육출판사	2004年 2004년	金秀子編著 김수자 편저
韓語閱讀/韓語 泛讀 한국어강독/한 국어범독	《韓語泛讀教程》 한국어범독교정	上海交通大學出版社 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07年 2007년	文英子主編 문영자 책임편집
	《韓國語閱讀》 한국어강독	世界圖書出版社 세계도서출판사	2007年 2007년	延世大學韓國語學堂 編 연세대학한국어학당 편
視聽 시청	《韓國語視聽說》 한국어시청설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年 2006년	盧星華 노성화
翻譯 번역	《韓漢翻譯教程》 한중번역교정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4年 2004년	陳宏 진평
	《韓中翻譯教程》 한중번역교정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5年 2005년	張敏等 장민 등
	《韓漢互譯教程》 한중호역교정	大連理工大學出版社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6年 2006년	李玉華, 孫金秋編著 이옥화, 손금추 편저
	《中韓翻譯教程》 중한번역교정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5年 2005년	張敏等 장민 등
	《韓中翻譯教程》 한중번역교정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張光軍 장광군 편
寫作 작문	《中級韓國語寫作》 중급한국어작문	世界圖書出版社 세계도서출판사	2007年 2007년	延世大學韓國語學堂編 연세대학한국어학당 편
	《韓國語寫作》 한국어작문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7年 2007년	林叢綱, 金龍 임총강, 김용
	《韓國語應用文寫作》 한국어실용문작문	延邊大學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2004年 2004년	全龍華著 전용화 저
	《韓語應用文寫作教程》 한국어실용문습작교정	遼寧民族出版社 요녕민족출판사	1998年 1998년	張光軍 장광군
韓國語語法 한국어문법	《韓國語基礎文法與練習》 한국어기초문법 및 연습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출판사	2005年 2005년	朴善姬 박선희
	《新編韓國語基礎語法》 신한국어기초문법	東南大學出版社 동남대학출판사	2007年 2007년	姚德才 요덕재
綜合韓國語 종합한국어	《100學時韓國語》 100시간한국어	世界圖書出版社 세계도서출판사	2008年 2008년	韓國延世大學韓國語學堂編著 한국연세대학한국어학당 편
韓國概況 한국개황	《韓國概況》 한국개황	中國海洋大學出版社 중국해양대학출판사	2005年 2005년	李承梅 이승매
	《韓國概況》 한국개황	大連理工大學出版社 대련이공대학출판사	2005年 2005년	林從綱 임총강
	《韓國概況》 한국개황	延邊大學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2004年 2004년	朴永浩等 박영호 등

표 4: 비정규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 상황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비정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교재가 본과대학에서 쓰는 교재들이다. 그리고 편자들도 다 본과대학에서 한국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들이다. 이런 교수들은 실제 2-3년제 전문대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집필할 수가 없다. 보다는피 교재는 다양하나 알맞은 교재가 없다. 그리고 소위 시청 과목은 그

교재상황이 형편없이 열악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실제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통일된 것이 각자 나름이며 국내, 국외의 교재가 혼용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국내 대학본과교재를 그대로 가져다 가르치는가 하면, 단기연수를 목적으로 만든 한국어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다. 혹은 자체로 편집, 인쇄한 교재나 복사한 교재를 쓰는데 이러한 교재들은 내용이 불충실한데다가 체본이나 인쇄 질이 나빠 학생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어떤 학교들에서는 한국어에서 만든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듣기나 회화 같은 과목수업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

그런데다가 적지 않는 과목들은 확실한 강의계획이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힘든 것은 학생들뿐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교육기관 문법교재인 <표준한국어> (북경대학교출판사)는 모두 3권이다. 보통 3년제인 전문대학이나 중전(中專)에서는 1학년 2학년 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배우고 3학년에 가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나 실습 등 관계로 계획대로 3권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수준미달의 졸업생들이 적지 않다.

또 하나는 어떤 학교들은 듣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을 간단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방법이 단조롭고 일방적이어서 그 효과가 좋지 않다. 영화나 드라마 감상은 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로이지만 그냥 대충대충 하다보니 학생들이 배우는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재사용이 연속성이 없이 중도에서 이것저것 자주 바꾸다보니 연속성이 없어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학습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비정규교육기관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출판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목하고 진일보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2.4 맹목적인 규모 확장 문제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비정규교육기관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130여 개(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700 여개 전문대학이 있음)에 달하는 전문대학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현상만 보아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적지 않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규교육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나 민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맹목적인 학생 모집과 규모 확장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비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매우 많다. 어떤 학교는 많으면 천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 교육기관은 적어도 백여 명 이상이다. 따라서 모집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무작정 학생 수만을 늘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다. 또한 나중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같은 것도 제대로 배려할 수도 없게 된다. 더욱이 비정규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의 취직도 정규대학교의 졸업생들의 취직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한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에서 2008년부터 출산율의 하락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에 적지 않은 본과대학과 전문대학들이 학생모집에서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심하면 문을 닫는 대학들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² 이것이 현실로 되면 많은 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도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 및 과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 한국어교육의 역할은 날로 커가고 있다. 산동성의 실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한국어 인재들은 거의 다 비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때문에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점차 사회적 중시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내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자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래 나름대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 및 과제를 제시해 본다.

3.1 안정된 교사진 확보가 필수적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질을 갖춘 교사진의 확보이다. 최소한 안정된 교사진이 있어야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운운할 수 있다. 현재 산동성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교육기관이 보편적으로 교사 자원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직업전문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학생 884명에 26명 교사가 있다. 이중에 중국적 재직교사가 16명과 한국적 교사 11명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체 교사의 42.3%에 달하는 외국인 교사진이 늘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이다. 정부는 물론 학교자체가 이 방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한 대가에 따른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 머물다가는 다 떠나가 버리기가 일쑤이다. 그리고 중국적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처우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특히 전문대학이 아닌 중전의 교사진들은 임시채용자가 대부분인데다가 여러 면에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사의 수준미달은 물론 교사 부족이 아주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하여 교사들이 걱정 없이 맡은바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 교육기관 교사결핍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 교육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마땅히 정부도 참여하여 유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주어야 한다. 각 비정규교육기관은 정부의 특혜 정책에 의뢰하여 교사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보다 우월한 처우를 해 줌으로써 교사 결핍문제 및 잦은 이도를 완화하며 되도록 경험이 있는 우수한 한국어 교사들이 학교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오직 교사 인원 확보가 안정적이어야만 교육관리, 교육수준의 향상을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교사 자질문제 시급히 해결

교사의 자질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교사의 자질향상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재 비정규교육기관에는 자격미달의 교사들이 적지 않는바 이 문제는 산동반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국의 모든 비정규교육기관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한국어교사 자질제고에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정기적인 교사연수제도의 실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선 각 비정규교육기관 자체가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이다. 잠시는 형편이 어렵고 자금이 달리더라도 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하며 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역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다 전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ark, 2002).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중국내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한국에라도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 예들 중 하나로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여름방학마다 경희대학교에서 “중국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좋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프로그램은 아직 정규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들에 한해서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므로 비정규교육기관 교사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위해직업대학의 교사진을 예로 들어 본다면 현재 학력으로 볼 때,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교원이 한 명도 없고 대학원학위 소지자 7명(대학원 과정생 포함)의 나머지 20명은 전부 학사 소지자이다. 중국적 전임교사16명 중 3명이 2007년에 한국 대구시 영진대학과 영남대학에서 27일간 연수를 받은 외에 한국에 가서 정규교육기관의 연수를 받은 교사가 거의 없으며 고작1년에 한두번의 국내 1-2일 단기양성반에 참석하는 정도이다. 대부분이 자질향상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어교사는 일단 대학의 전임교사로 되면 전업이나 가타 인증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신 교사로 되기 때문에는 제직교사의 소질향상 문제도 큰 과제로 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보아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사들의 자질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현재 교사 자질문제 해결의 가능한 방법은 한국학 재단이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그리고 중국 한국어(조선어)교육학회 등 단체들과 정규대학교 한국어학과들이 연합으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교수진 등 여건이 허락되는 정규대학교 한국어학과들에서 지역에 따른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단기간에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교육이 급속도로 확산, 발전하는 산동반도, 강소성(江蘇省), 동북3성 등 몇 개 곳에 거점을 두고 한국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중국한국어(조선어)교육학회에서 최근에 몇 번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다 같이 한국어교육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자들이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실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보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실제 비정규교육기관 교사들의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도 자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대책은 한국어교사 인증 제도의 도입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중국 내 정규교육기관에서조차 이 제도를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육기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같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 단계 여건으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의 인사제도가 기타 방면에서 정규교육기관보다 더 뛰어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증 제도를 중국에 도입하여 제도화 한다면 중국적 한국어 교사와 중국에 있는 한국적 한국어교사들의 자질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격증의 유무가 교사 채용과 임금 수준 및 처우에서 고려 사항으로 된다면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자질 향상에도 유익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인증제를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혹은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도입한다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에 이 문제도 잘 고려할 바라고 생각한다.

3.3 한국어 교육 기관 인증제 도입

선진적인 외국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영어교육 산업의 중주국인 영국이나 최근 국제일본어교육의 부흥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은 자국에 오는 어학 연수생들을 위해 대학기관 및 사설 어학기관들을 자체 기준으로 관리 인증하는 기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Min, 2003참고). 이러한 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중국의 각 지방에 있는 한국어교육 사설 어학기관들에 대해 그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면 비정규교육기관의 관리와 수준이 훨씬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공포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과 피 선택이라는 상호 관계 속에서 교육기관들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단히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 인증제는 또 외교(外教)로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에 취직하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어 기초를 가진 한국 유학생들도 한국어 교사 인증제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요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교사들이 있긴 하지만 처우 등 문제로 수준이 높은 교사채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대학본과졸업자들이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3.4 부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통일적인 규범화 필요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요한 교과과목을 부분적이라도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통일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각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종합하고 유형화하여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 알맞은 교육과정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든 유형화된 교육과정을 각 비정규교육기관들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그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수요목도 잘 만들어 교사들이 수업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

3.5 비정규 교육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 시급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실제에 알맞으면서도 통일된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교재사용이 매우 혼란스러워 효율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비정규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려면 통일되고 실정에 알맞은 수준 높은 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교재개발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면 한 세트 교재는 적어도 정독(문법), 회화, 듣기 교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교재는 학교마다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보통4급) 교재도 필요하다. 여기에 그와 상응한 지침서가 있으면 학생들의 4급 더 나아가 6급 합격률도 지금보다 많이 늘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 중국의 “외국어교육 및 연구 출판사”(外國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는 2009년 10월에 산둥성 내에 있는 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장래 전국의 전문대학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장래에 이러한 움직임이 꼭 현실로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교재를 연구, 개발해 냈고 동시에 이에 상응한 학생수준 평가기준 및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바람이다.

4 중국의 비정규교육기관 한국어교육의 전망

총괄적으로 산둥반도 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지역에서의 비정규 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지난날에도 그러했거니와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산둥반도 내지 전국의 비정규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까지는 비록 지위가 높지 못하지만 그 발전 전망은 밝다고 본다. 올 5월에 졸업생논문 때문에 위해시의 주요한 전문대와 중등전문학교들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조사에 보면 7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약 3천 5백 명 정도가 되는데 취직률이 90% 이상에 달했다. 주요하게 응용한국어라는 명목으로, ‘전공(컴퓨터, 관광, 경제무역, 애니메이션 등)+한국어’의 형식으로 공부한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에도 무난하게 취직이 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주로 노동집약형의 한국기업이나 합작기업에 취직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최근 본과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취직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기업들이다. 바로 인력난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러한 졸업생들이 덜어주는 셈이다. 때문에 저렴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기업들은 현재 점차 이런 부류의 졸업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물론 이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본과졸업생들의 취직에 영향을 미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안심하게 보내는 정규대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유익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컨대 비정규기관의 한국어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으로 그 상호 보완성과 무궁한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산둥반도 뿐만 아니라 전 중국의 정규대학교 한국어교육의 발전 및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고 이끌어준다면 중국에서의 비정규기관의 한국어교육도 특색이 있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한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산둥반도의 한국어 교육은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할 것이며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은 산둥반도 한국어 교육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계속 확대,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규모 확대는 어디까지나 금물이다. 정규대학의 한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확장을 절제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온당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도 경제발전 및 정치관계변화와 정비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현재 한국에 나간 유학생수가 6만 명을 넘어간 상황에서 학생모집규모도 적절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엄격한 규제로써 비정규교육기관의 맹목적인 확장을 막아야 한다. 교육여건이 기준 미달인 교육기관은 학생모집 정지, 또는 운영 자격 취소 등과 같은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비정규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보다 투자를 늘려 교육시설 개선,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내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에서의 비정규교육의 필요성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보다시피 중국에서의 비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정규기관의 한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중요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현재 산둥성(산둥반도 중심), 강소성, 상해, 북경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지역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중한 양국의 경제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독자기업이나 회사, 또는 합자, 합작회사들을 위해 직장 제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한국어능력소지 인력(본과졸업생들은 기피함)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봐도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정규기관의 한국어교육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에 정부나 교육행정관리부서에서는 장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맹목적인 확장을 막고 온당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증가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정규교육기관이 앞으로 중국의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은 물론 전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서 논의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중국에서의 비정규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은 더욱 성숙되고 차원이 높은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중국교육부고교사 유길(劉桔)사장(司長)이 “전국고등직업교육전공개학과 교육자원건설사업세미나 및 국가시범성고등직업대학건설 3주년 성과 회의” 에서 한 발언 내용(공식서류) 참조, 2009년 11월 26일, 북경.
²중국 우한대학(武漢大學) 구하이량(顧海良) 총장이 본 대학교의 학생들과 나눈 대담에서 향후 10년 내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이 어려워 지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학교와 독립학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0년 3월 24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교육·과학” 면 글 “미래 10년 내, 일부 대학교 파산 위기에 직면”(未來十年某些高校將面臨破產危機) 참조.

참고문헌

- Park, K.S. (2002). *The current status and issu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III*. Seoul: Taixue Institute.
- Min, X. (2003). *Process of Korean education in internal institution*. Paper presented at the 13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by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Language Pedagogy, Seoul, South Korea.
- Lee, H. (2006). *Informal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in Shandong peninsula. Research on Korean Studies*. Beijing: The Ethnic Publishing House.

Summary in English

(English Title: Perspectives on the Current and Future Situ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in China)

Inform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have had a history of 18 years since August, 1992, when China and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Although it is only a short period, the achievement is remarkable. The rapid development benefits from all kinds of advantageous social elements, especially from increasing investments by Korea in China and the frequent trade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Up to now, specialist departments of Korean language have been established in more than 80 formal Four-Year Universities in China. The competition among these departments is getting fiercer by the day.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programs offered by informal institutions, including Three-Year Bachelor's degree programs, has grown rapidly to more than 120 in number. In addi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teaching and management system makes them a force to be reckoned with. What is remarkable is not just the number of graduates they produce but the increasing language proficiency they attain. Employment prospects have similarly improved.

Undoubtedly, this educational model still faces many different problems, especially in setting up the subject, offering new courses, finding teacher resources and reforming the teaching materials. Furthermore, informal institutions – much like form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 are growing too quickly,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bubble situation, while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may actually be decreasing proportionately owing to the current unfavorabl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t is thus of great urgency that the management of such institutions should be reinforced in search of a more sustainable model suited to the actual situation.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facing inform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focusing primarily on Shandong Province, and puts forward a proposa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